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92 호 현대불교 21
2022년 6월 22일(음 5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오늘 살다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서원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하기에 저도 큰스님처럼 금생에 이 도리 깨달아 자유인이 돼 보리라고 서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너무 큰 원을 세운 것일까요?

답변 이거 보세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걱정합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벌써 문을 막는 겁니다. 잘되려니, 그렇게 되려니 안 되려니 하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력을 할 때에도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간다면, 금반지를 만드는데 그냥 무쇠도 넣고, 다른 걸 모두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해 두고 이 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짐….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산을 지금 갈 텐데 말입니다, 아주 급하게 부산을 꼭 가야 하는데 '이거 가야 옳은가?' 또 가다가도 '이거 가야 옳은가, 안 가야 옳은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급해서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이지, '내가 여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내가 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빌딩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나갈 생각만 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전부 타올라서 사방이 막혔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조그만 새끼들을 죽 앉혀 놨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자식이고 뭐고. 그것도 숨이 붙어 있고 살 때 얘기죠.

그런 마음이라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여기 자기 선장의 구멍밖엔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구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데도 그 마음이 통해서 새가 됐으니까, 서산 대사가 새가 돼 버렸으니깐 새가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내가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사람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다.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사대로도 통신이 됩니다, 또.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작용도 해 주게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살들이, 즉 말하자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또 약사도 되고 칠성부처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한 마디 해서는 생소하다가 두 마디 해서는 좀 낫고, 또 세 마디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치를 하는…, 그냥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걸 아무리 되게 하려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차원이 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입력이 됐다고 믿었으면 '아, 입력했으면 나오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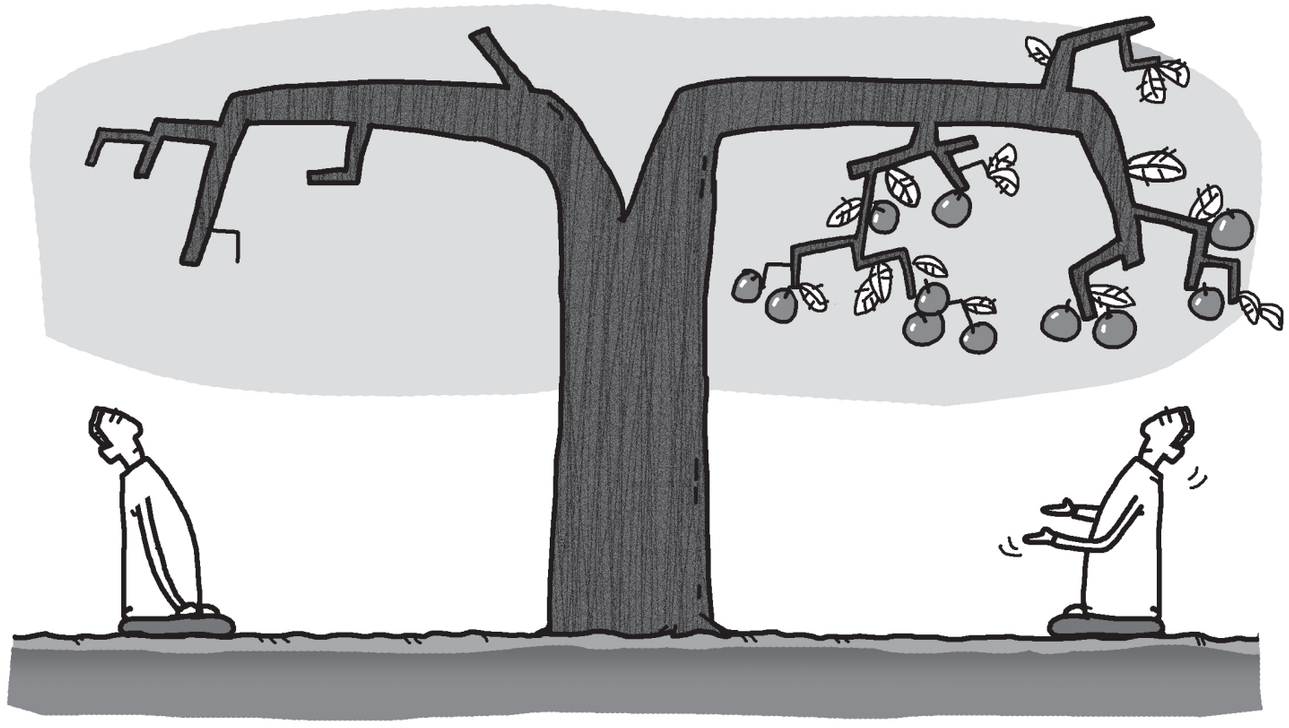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상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거울에서 저를 보면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 보려고 하는데도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그게 얼굴에 다 새겨져 버렸나 봅니다. 마음공부를 하면 얼굴 인상도 편해지겠죠?

답변 여러분이 그저 스스로서 자기가 웃고 스스로서 얼굴을 펴고 사셔야죠. 이게 간판이나 한가지예요. 벌써 마음이 우그러지면 몸까지 얼굴까지 우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한 식구가 있는데 마음을 우그러뜨려서 좀 아주 사는 게 각박하고 '에이, 죽고만 싶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우그러지죠. 그러니까 얼굴도 우그러지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또 저렇게 화가 나셨나? 왜 저이가 저런가?' 하고 식구들은 눈치를 보고 편안치 못하죠, 모두가. 식구 수대로 다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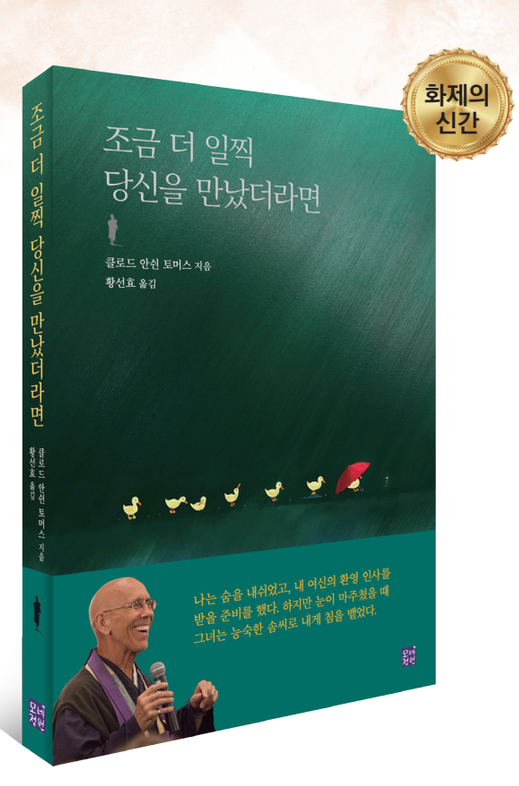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대로 마음 편안하게…. 다 자기 근본 주인공, 거기다 맡기니까, 맡길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맡길 데가 없다면 정말 편안치 않겠죠. 맡길 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편안하다. 그런데 맡기면 그렇게 안 되느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엔 없다.

우리가 이 사는 이치가 여러분의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니까 생각을 좀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펼쳐서 편안하게만, 살기 좋게만 만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직껏 그렇게만 보고 살아와서 넓은 세계를 모르고 좀 편안한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일을 모르고 이러니깐 크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세상은 너무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좁히고 우리나라, 나라가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대로 위하고, 또 종교가 다르고 모두 그러니까 모두들 맡아 가지고 있겠지만 이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 사람만이 맡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밉다 하면은 그 사람 미운 거 하나 가지고선 온 나라를 다 그르쳐 놓는 거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웃음도 나오고 남도 좋게 말도 해 줄 수 있고 좋게 참 이끌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마음이 불안하면 남도 건질 수가 없죠. 그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